

애크스트에서 장애사역 시작함

베스 린세마, 돌봄사역 디렉터, 애크스트 기독교개혁교회, 애크스트, 일리노이주

“우린 이보다 더 할 수 있지,” 40 세인 교회 성가대원으로 신실한 성도며 장애부 팀원인 켈드라 올리치는 말합니다. 그녀는 교회 가족중 한 장애 어린이를 위해 예배 중에 어린이 돌봄을 지난 4 년간 해온 장애 사역을 말한 것이었다. 그녀는 더 활동적인 사역을 희망해왔다. 그녀는 날때부터 왼쪽 부분이 마비로 배움에 어려움을 갖고 지낸다. 그의 경험과 열정으로 장애 사역은 새 성경구절인 이사야 35:3-6 에서 따온 튀기-“희망적 삶과 항상 기도하기!” 라는 새 선교문구를 도입하였다.

북미주 개혁교회 장애우 사무처로 도움을 받아서, 엘림 기독교학교, 조니와 친구들, 다른 지역교회들과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필요를 하는 자녀들의 가정들과 조그만한 진전을 시작하였다.

우리 팀은 교회의 장애 어린이들을 둔 여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고통스런 갈등, 잃어진 꿈들, 위대한 사랑과 깊은 믿음들에 관해 들었다. 그후 한 믿음의 단계로 주일 아침 성경공부 반에서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장애에 관한 지식들과 마음속에 있던-어떻게 교회에서 도움받았거나 상처받은 것들을 나눠주었다.

부모들의 이야기들을 들은 후, 우리 프로그램식 접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둔 한 우리 팀 인원인 엄마의 충고로, 도움을 주기 전에 이해를 구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첫번째 목표는 그 가족들의 신임을 받는 것이었다.

우린 하나님께서 이사역을 어디로 이끌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새 이름처럼 희망적 삶과 항상 기도하고 있다. 우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기다린다. 우린 많은 것을 배우길 희망한다.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에 열정과 전문인을 붙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린 우리교회가 이 가족들을 감싸 안을 것을 기대한다. 또 우린 이런 모든 희망들을 위해 기도에 힘쓰고 있다.

돌보는 것 이상

캐나다의 북미주개혁교회 한 엄마

22 살 난 내 딸은 몇년간 다니는 교회서 지난 6 월에 믿음의 고백을 가졌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장애, 아스페르기 증후군으로 많은 문제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만져짐을 싫어하는 증상을 갖고 있다.

그녀는 심지어 앉아서 손으로 짜는 예비 직업 반의 도전도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그녀의 일을 금하지 않았다. 사실 목사님은 그녀의 집중에 더 관심을 가졌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봐요, 그녀는 띄게질하며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그녀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띄게질을 했습니다. 그 일은 그녀를 집중함으로 조용하게 만들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조용하게 띄게질함에 놀랐다.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교회와서 믿음의 고백함을 기쁘게 여깁니다.

보통 우리들은 사랑의 접촉으로 연결돼지만, 우리 딸의 경우는 사랑이란 그녀를 만지거나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만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축도할 때처럼, 고백하는 날에도 그의 손을 각자 손들 위에 얹어서 축복을 했습니다.

보통 내 딸은 예배 후에 먼저 나가게 했는데 그녀는 “예배 후의 인사”의 반 정도 서 있었다. 교인들은 그녀를 만지지 않는 것을 존중했다. 누구도 그녀의 손을 흔들지 않았고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다. 사실 교인들은 그녀가 그렇게 서 있었음을 놀라면서 좋아하였다!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내 딸은 “은사 발견하기” 설문지를 작성하고 사역 코디네이터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녀 은사중 하나가 봉사였다. 예배후 커피나 차를 마실 때 그녀는 쓰지않은 컵들을 정리하거나 쓴 컵들을 씻게 부엌에 가져왔다. 그녀는 또 교회 좌석의 카드들이나 봉투들을 정리하였다.

전에 교인들은 그녀가 자기 나이와 다른 아이들과 다름을 볼때, “아이, 불쌍한 아이... “하곤 하였다. 얼마 지나서 교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나의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항상 있는 그곳이 아닌

수지 지록스, 삼위일체 교회, 애보츠포드, 브리티스 콜럼비아

나는 매일 언어 통역관으로 대화의 진행자이다. 삼위일체 교회에서도 나는 교회 귀머거리 성도들과 목사님사이의 대화의 도관이지만, 나의 통역은 근 10년쯤 거스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도관이기도 하다. 내가 하는 통역은 우리 귀머거리 성도들에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통역의 영향은 내게도 분명하지 않지 않는가.

이십년 전, 나의 통역일은 고등학교 때이다; 그 때 나는 삼위일체교회의 한 아이 성도를 위한 것인지 몰랐다. 나중에야 삼위일체에서의 통역하는 봉사 의무임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때 다시 나의 삶엔 갈등을 가져오는 통역함이었다. 십년동안, 나는 알파공부반 초대 참석을 거부해왔고, 혹 나는 다가오지 못하게 그 봉사 후에 속히 나갈것을 시도해왔다!

삼위일체 교회의 통역은 단지 일이었지만 나는 자주 내 머리와 가슴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생각에 강요되었다. 그 때 나의 한 친구 죽음의 비극이 나를 때렸는데 그 때 어디든 갈 수가 없었다. 나의 친구들 서클에서도 누구는 죽음으로 고통하였고 어떤이는 나의 슬픔으로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사라지곤 했다. 나는 위로와 화평과 예수를 삼위일체 교회의 성도들안에서 발견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나의 무너진 가슴과 잃음속에 다가와 2010 년 12 월 19 일에 예수님을 내
맘에 받아들였고, 2011 년 6 월 5 일에 공적 신앙고백을 가졌다.

그후 나는 북미주개혁교회의 리더쉽 개발 네트워크에 참여해 이스라엘을 여행했고 삼위일체의
학생들과 함께 선교여행도 하고 리더쉽 학위위한 공부도 하였다. 지금은 하나님은 나를
삼위일체의 학생부의 단기 지도자로 이끄셨다. 나는 계속 공부하면서 내가 누릴 수 없는 은사를
아는데까지할 것이다. 우리가 나누는 봉사들은 그들에게 분명한 영향을주어 다리를 만들고
장벽철기를 하고 또 그것은 봉사자들의 마음을 만진다.

가정과 교회위한 한 매력적인 비전

크리스 란햄, 캐스캐이드스 교제 교회 목사, 짝슨, 미시간주

캐스캐이드스 교제의 특별필요 사역은 밥과 알리스 디브리스 목사님 내외의 비전으로 은퇴를
앞두고 4 명의 자녀들을 입양되면서 시작되었다. 2004 년 가을에 여러해 동안 가져온 그들의 꿈이
결실을 맺었다: 장애우 자녀들을 위한 예배.

성경이야기의 좋은 시각과 비데오 렌더링을 사용해 그들은 아이들과 학생들을 교육시켰지만
가족들은 자기 아들과 딸들을 따로 예배드림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몇 가정들이 본당
지하실에서 매주일 함께 즐거운 함성들과 은혜의 교리들을 배우면서 이해가 늘어났다.

이 계획된 예배는 자녀들로 교회의 모든 면에 신임하지 않고 믿지않는 통계적 가정들을 가볍게
두드리게 되었다. 어느 한 가정은 목사님께 주일 대신 대체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번역:부모들은 환영하지만 자녀들은 아님. 캐스캐이드스 교제 교회와 반대로 이것은 그들의
예배였다. 움직임, 시각적 신호들과 참여가 기대되었다. 손으로 철썩거리는 소리까지 허락되었다.

나중엔 그들은 한 지원 그룹까지 시작하였다: 부모 자녀 양육 도전하기. 한달에 한번 하는 식사
교제의 잘 준비된 전문 강의에 가정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 우리 적은 교회가 짝슨 카운티의
장애우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밥목사님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참석이 줄어들고 알리스 사모는 밥목사를 돌보게 되었다. 2012 년
3 월에 목사님은 사망하였다. 그 사역은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림자처럼 되었다.

우리의 그 사역이 바래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독특한 때를 주셨다. 우린 계속 그들을 섬긴다.
우린 따로 드린 두 예배를 한 예배로 만들 계획이지만 그들이 사용한 같은 전략들을 갖고: 시각적
신호들, 참여와 적당한 움직임등으로 우린 지원 그룹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 사역은 끝나지
않았고 그 비전은 죽지 않았다. 그것은 은사와 능력들을 가진 문지기들로 맞춰 변하면서 발전되는
중이다.

장벽없는 음악 사역

카산드라 룩킬, 제일개혁교회, 발드윈, 위스컨슨 주

한 아이 유아세례와 15 명의 고백자들, 나는 제일개혁교회를 항상 사랑한다. 나는 종종 고등학교 성가대서 특별음악과 노래를 하였고, 곧 작곡의 열정도 개발해 찬양과 예배음악에 노래하였다.

나의 교회 가족은 계속 후원하였다. 많은 분들이 나의 시각 장애를 알지만 나의 부모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언젠간 음악으로 주님을 섬길것을 믿고있다.

나는 대학교때 음악을 뒷전하고 영어와 문학을 전공하였다. 난 소설을 손으로 써 보았고 신문 리포터나 잡지편집자의 일을 찾아보았으나 그것은 많은 조직체에선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기를 꺼려하였다.

그래서 난 리더쉽 사역의 석사과정에 등록하였다. 2011 년에 교회의 현대예배음악으로 논문을 마친후 발드윈의 제일교회 팀 슬루터목사님은 교회음악과 예배 디렉터로 일부 일할것을 제안하였다. 난 받아들여 교회에서의 첫날의 일이나의 어디에서든 첫날이었다. 그때까지 난 공식적으로 일하지 못했기에 첫시간의 내 사무실에 들어갈 때 내 눈에선 눈물이 났었다.

나의 시각 장애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를 환영과 격려를 주었고 장애음악인이 아닌 예배인도자로 보았다. 이 교회는 나를 변화시켰고 어떻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터에 함께할 수 있음을 보게되었다.

내 능력의 최선으로 섬기도록 장려될 때 나는 교회의 찬양과 예배를 인도 할 뿐아니라 설교의 말씀도 나누고있다. 물론 나의 시각 장애가 가끔 내게 장애물로 다가오지만 교회는 내가 장벽들없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있다.

리듬의 빛나는 얼굴, 자폐증과 믿음

지젤라 보로스키, 베이사이드의 콜로니아 교회(RCA), 뉴욕

제넷과 딸그레시에가 뉴욕 베이사이드의 콜로니아 교회에 온 지가 몇년이 되었다. 제넷은 자폐증으로 인해 말 못하는 그레시에 여름성경학교에 보낼 수 있는냐고 물어왔을 때 그 대답은 즉시 예 이었다.

수년간 우리 교회는 그레시에가 보이는 일반적인 소란들과 에네지 발산들을 어느만치 적응했지만, 그러나 제넷과 그레시에는 우리 교회에 많은 일을 변화시켰다.

그레시에는 지금 14 살로 나는 매주일 교회에 들어오는그녀의 기쁨과 환희에 감탄하고 있다. 그녀가 말로 표현하진 못하지만 그의 얼굴은 찬양팀이 소리를 높여 리허설을 시작할 때 빛남을 보게된다. 그레시에, 제넷은 매 목요일 리허설때 나와 함께하며 많은 주일에 그녀는 우리가

예배실에서 찬양의 노래들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함께한다. 그녀의 눈은 집중하며 우릴 보고 있으며 그리고 그의 얼굴은 큰 스마일로 광채가 난다.

근래 우리 년중 탈렌트 쇼때 제넷과 그레이에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란 노래를 불렀다. 비록 그레이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단순한 말들은 나의 눈에 눈물이 나게했다. 또한 그들은 비틀즈의 노래에 일상적인 춤을 추었으며 제넷이 스테이지를 돌 때 그레이에는 완벽한 동기화를 음악에 맞춰 두 막대기와 함께 박자하며 웃으며 서 있었다

“그녀가 리듬을 하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콜로니알 교회 예배 인도자 브렛 로엘츠는 말했다. “곤내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우리팀에 드럼머가 없을 땐, 그레이가 우리 리듬 반을 할 수 있겠네! 지금 그녀가 엄마와 앞에서 예배를 함께 한다면 우린 그녀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박자의 독특한 은사로 많은 유익을 갖을 걸.”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 여행

마크 메스트, 오디세이의 동사목사, Poughkeepsie, New York

몇해 전에 우리 교회는 퍼즈키츠시서 부터 뉴욕시 보행자들에게 전격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장애우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다. 오디세이,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 여행,” 교회는 4 명이 참석하는 월말예배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주말에 150 명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고 이것은 35 그룹 홈에서오는 어른 중심의 사역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는 시작이었다. 우린 장애우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로 헌신하였다.

처음부터 우리 목표는 우선적으로 지적과 발달 장애우들이 필요한 예배장소를 구하는 것이었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이차적이었다. 우리는 특별한 필요를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써-무엇이 필요한지 명백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예배 인도나 성경공부, 목회돌봄 등을 같이 하였다. 우린 결코 “바보처럼”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재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주면서 그것이 삶의 구석들에 적용하였다.

변호는 요한복음 14 장의 변호함을 이해해 가면서 우리가 누구임을 보여주는 좋은 측면이다. 변호인-성령-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개인 삶에 그리스도의 변호인이 되기를 노력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 우리 자신들과 다른이들을 사랑함을 이해한다. 우린 교회에서 장애우들에게 자주 오해와 가끔 심하게 대우함을 느낀다. 비록 그들이 세상에선 가끔 이방인들로 여겨지만, 오디세이는 우리 주안의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 이웃, 직장, 집이나 혹은 다른 삶의 상황에서 겪는 갈등들을 곁에서 돌볼것을 헌신한다.

뉴욕 호프웰 정선시, 호프웰 개혁교회(odyssey.hrcrca.org)의 한 사역으로, 우린 오디세이를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실지 알지못한다. 청소년 사역보다 적은 예산과 전임사역자가 없이도 우린 하나님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 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모든 우리들에게도 오디세이를 사용하심을 안다. 우린 교회 공동체가 “특별한 필요들” 이 필요로 하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

주제들

가을: 북미주 개혁교회 장애우 사무처의 30주년 축하로 이번 호는 장애우들로 인해 변화된 북미주개혁교회나 미주개혁교회 안의 교회와 개인들의 이야기들을 다뤘습니다.

겨울: 배우자의 장애가 결혼이나 연결된 교회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옵니까? 글들을 (400 자 이내로) 2012년 10월 15일 까지 꼭 보내주세요.

편집자의 글

감사하기

마크 스트븐슨, 북미주개혁교회 장애우 사무처 디렉터

추수감사절 축제가 지금 캐나다와 미국에 다가오고 있다. 금년에 나는 북미주개혁교회 장애우 사무처의 30주년과 연결된 많은 축복들을 감사를 드린다.

헌신들: 북미주개혁교회는 총회적인 여러 헌신들로 교회생활에 장애우들을 포함시킴을 우선히 하였다. 특별히 1985 총회때 우리는 “육체, 결함을 가진 사람들의 필요나 은사들에 집중할 것을” 서약하였다. 1993년 총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주개혁교회들은 장애법안과 함께하는 미국인들의 조항들에 대해 완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원봉사자들, 협동/함께함: 북미주개혁교회 장애우 사무처는 전임디렉터와 2명의 임시 보조들을 통해 자원봉사자들과 사자의 공유 사역들을 하는 37명의 지역 노회 변호인들과 615명의 개 교회 변호인들이 봉사하고 있다. 여러 교회들과 개인들이 우리의 사역에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협동하고 있다. 우리 사역이 가장 중요한 협동은 3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미주개혁교단의 장애우사무처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이다.

접근 가능한 건물들, 변화하는 태도들: 지난 7월 배너지 뒷 커버에 실린 정보 그래픽 처럼(우리 웹사이트도 마찬가지로) 교회들은 여러모양으로 장애우들과 함께 환영하며 포함하고 있다. 예를들어 북미주개혁교회들의 90% 이상이 교회 건물들이 접근 가능하게 되어있고 그 중 반 이상이 장애우들을 위한 교통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들: 모든 사역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돼어지고 있다. 북미주개혁교단과 미주개혁교단의 장애우 사무처 사역들이 이뤄어 지고 있음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들이 더 거룩하여 모든 사람들이 속하고 모든 사람이 봉사하는 건축, 대화와 태도들의 장벽들을 허물어 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 2012 Disability Concerns ministries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and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장애물 헐기는 CRC 장애우 사무처에서 계절마다 발행합니다;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0800, and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 and by RCA Disability Concerns, 4500 60th St. SE, Grand Rapids, MI 49512-9670. Rev. Mark

Stephenson, Director of CRC Disability Concerns (888-463-0272; mstephenson@crcna.org), and Rev. Terry DeYoung, Coordinator for RCA Disability Concerns (616-541-0855; tdeyoung@rca.org), edit *Breaking Barriers* together. Permission is given to make copies of articles as long as the source is recognized.